

중국 - 상하이에 ‘유행생지연구개발기지’ 건설

중국국가섬유제품개발센터(中國國家纖維製品開發center)는 중국방직공업협회(中國紡織工業協會)의 지원을 받아, 동화대학(東華大學), 중국 국내의 주요 섬유메이커,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상하이에 중국유행생지연구개발기지(中國流行生地<面料>研究開發基地)를 건설하였다.

이 기지를 건설한 목적은 중국의 섬유산업이 직접 부딪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(產業構造調整), 산업의 레벨업(level-up), 섬유메이커의 개발능력을 높여 중국브랜드의 인지도(認知度)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.

중국유행생지연구개발기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‘국가섬유업계 혁신·신 서비스 플랫폼(國家纖維業界 innovation·新 service platform)’으로 지정되었으며 나라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가 있다.

이 기지의 총면적은 32만㎡로 섬유기업권구(纖維企業圈區), 유행디자인권구(流行 design圈區), 공공서비스구, 실험기지(實驗基地)의 4개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개발, 디자인, 실험, 정보교류, 상품검사, 물류, 인재육성 등의 기능이 이 기지 내에서 모두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다.

이 기지에서는 섬유원료, 실, 직포, 염색정리, 마무리가공, 부자재(副資材) 등 상류(上流; upper stream)로부터 하류(下流; down stream)의 산업 체인(chain)으로 연결되어 있는 참가기업이 신제품의 용도개발, 기술개발, 컨설턴트 서비스(consultant service) 등의 분야에서 밀접하게 제휴하여 공동으로 무역업무, 수주업무, 신제품개발, 브랜드 강화책 등을 담당할 목적으로 되어 있으며 연

구개발의 성과를 신속하게 상품화함으로써 효과적인 경제효과를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. 상하이에 이 기지를 설립한 이유는 상하이가 갖고 있는 인재, 기술, 시장, 정보분야에서의 우위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.

중국 유행생지연구개발기지는 현재 많은 섬유 관련기업이 주목하고 있으며 절강용성집단(浙江龍盛集團), 해천경방집단(海天輕紡集團) 등 10개사가 참여할 것을 밝히고 있다. ♣